

광주·전남 학교 국제교류 붐

광주, 30개교 안팎 中·日·프랑스 등과 교류 BTS 제이홉 축하영상...전남 작년 144개교 문화·외국어 체험·수업 공유·홈스테이 등



광주 국제고가 지난 20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한·중·일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세계문화체험 행사를 열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중국 하남성 허창고와 일본 고치현의 메이토쿠고 교사와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다. 3개국 학교 참가자들이 22일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중심 국제교류가 잇따라 글로벌인재 양성의 기대를 받고 있다.

전통문화 체험과 신세대형 문화교류는 기본이고 외국어 체험 역사부어 수업공유에 정겨운 홈스테이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국제적인 안목을 키우는데도 일조하고 있다.

22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연간 30개 안팎의 초·중·고교에서 학생 중심 국제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이 절반 가량으로 가장 많고 일본, 프랑스 순이다.

초등에서는 송원초와 서석초 등이 해마다 한·중·한·일 자매학교 교원문화 교류회를 열어 합동 공연과 전시 음악 공동수업, 과학놀이와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갖고 있다. 중등에서는 학교 이름에 걸맞게 국제교과가 단연 눈에 띈다. 지난 20

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한·중·일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세계문화체험 행사를 열고 있다. 중국 하남성 허창고 일본 고치현의 메이토쿠고 교사와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다.

민속공연과 전통무용, 힙합댄스와 태권도 시범, 그룹사운드 공연에 이어 세계적 아이돌그룹인 7인조 보이밴드 BTS(방탄소년단)의 메인댄서 겸 서브래퍼인 제이홉(정호석)이 활동했던 댄스동아리(Center-Y)의 공연도 새롭게 결연했다. 특히, 월드투어 차 미국에 머물고 있는 제이홉은 영상편지를 통해 '인생과 지성의 조화로 창의적인 국제인이 되자는 메시지를 보내와 눈길을 끌었다.'

국제고는 1998년 일본 고치현과 청소년 국제교류를 실시한 이래 22년째 공연과 남도답사와 홈스테이 등 상호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2008년과 2011년에는 각각 일본 메이도쿠기주쿠고, 중국 허

창고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박창재 교장은 "문화교류를 통한 국제화는 물론 중국과 일본 학생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와 광주, 전남에 대해 피부로 느끼며 직접 홍보대사로 활동할 수 있어 1석3조"라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정광고가 프랑스 성모마리아고와 맺새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공동음악수업과 템플스테이, 녹차밭과 고인골공원 방문에 이어 5·18교육과 궁중요리 체험도 진행됐다. 성모마리아고는 지난해 정광고 학생들이 프랑스를 방문한 이후 한국과 한국어,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한국어 수업을 정규 교육과정에 개설하기도 했다.

3월에는 살레시오여고가 일본 세이비고와 서석초가 일본 아이치교육대와, 1월에는 전남여상이 일본 기비코겐가쿠엔고와 각각 교류했다.

기비코겐가쿠엔고 요코테 유헤이(17)장은 "한국 친구가 선물해준 마스크팩을 바로 부착해 라인 채팅방에 공유했는데 너무나도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전남에서는 해남고 글로벌 캠프단이 지난 2월 3박4일 일정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우수리스크 일대를 탐방하고 블라디보스톡 13번 고등학교를 찾아 역할 놀이와 아이스브레이크, 게임형 수업 등 다채로운 교류 프로그램을 가졌다.

해남고 김서연 학생은 "지역적, 언어적 차이를 생소하고 소통에 두려움도 있었는데 교류를 통해 또래이자 친구로서 서로의 생각과 고민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2020년 3월 예술 분야 특수목적고인 광양 한국 창의예술고 개교를 앞두고 오는 7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교수와 학생 등 세계 수준의 음악가들을 광양으로 초청해 음악회와 함께 학교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조인호 기자

전남교육청, 지방공무원 복지혜택 확대

전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학습휴가 적용 범위가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전남도교육청은 22일 열린 제3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공무원 복지혜택 확대를 골자로 한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만 재량휴업일, 개교 기념일 등을 이용해 사용하던 학습휴가를 전체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연 3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5월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근무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을 바란다."며 "공무원들이 자기계발의 기회를 잘 살려 교육현장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농어촌-섬마을 학생 7000여명 '야구 데이'

전남도교육청, 섬지역 15개 학교 522명 학생은 1박2일 체험학습 연결



장석웅 전남도교육청 등 교육청 관계자들이 21일 광주 기아-팬퍼런스필드 야구장에서 열린 기아티거즈와 롯데자이언츠의 시즌 4차전에서 단체로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한 채 기아 티거즈를 응원하고 있다.

농어촌 학생 등 전남지역 학생과 교직원 7000여명이 뜻깊은 '야구 데이' 행사를 가졌다.

2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전남 광주 기아-팬퍼런스필드 야구장에서 농어촌 학생들을 위한 꿈과 희망의 프로야구 관

람 행사를 가졌다. 롯데자이언츠와의 시즌 4차전으로 전남지역 학생 5438명과 교직원 1606명 등 모두 7044명이 관람했다.

대부분 도서벽지와 면소재지 학교에 다니는 초·중학생들로 특

히 섬지역 15개 학교 522명 학생들은 1박2일 체험학습과 연결시키는 등 학교 교육 과정에 운영의 묘를 발휘했다.

이날 행사는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본부장 서육원)에서 입장권과 도시락 비용을 누리문화재단을 통해 지원했으며, 전남교육청은 참가자들의 이동에 필요한 차량비를 지원했다.

경기시작 전에는 장석웅 교육감이 시구를, 신안 하의초교의 유일한 4학년생인 정귀성 학생이 시타를 했다. 또 진도 신진초 재학생 18명이 애국가를 합창했으며, 5회 말 응원석에서는 해남 황산초 학생들의 멋진 댄스공연이 펼쳐졌다.

한편 기아 티거즈가 학생들의 응원 등에 힘 입어 2연승을 달렸다. 기아는 장단 16안타를 몰아치고 박찬호의 귀중한 2타점을 앞세워 10대 6으로 승리했다. 박홍식 감독 대행체제 3승1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김정환 기자

광주동부교육청, 교(원)장 워크숍 개최

유·초·중 교장과 원장 94명 모여 업무 혁신 논의

광주 초·중학교 교장과 유치원 원장 94명이 모여 관리자 역할과 업무 혁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영신)은 21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관내 유·초·중학교 교장과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 행복동부! 교(원)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학교문화혁신의 우수 사례와 학교 현안을 상호 간에 더 공감하고 소통함으로써 상생하는 동부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직급별 소통의 시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분임토론 시간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혁신 ▲수업 나눔과 수업 협의 방식 개선 ▲학교 특색에 맞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및 교직원과의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담은 샌드아트·메이선 리이브 공연,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 논의, 더 나은 동부교육을 위한 토론 등을 진행해 학교 간, 학교



와 교육지원청 간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에 참여한 양지초 류형숙 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동부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학교문화혁신을 위해 관리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동부교육청 장영신 교육장은 "현장의 변화에 발맞춰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와 학교문화혁신을 위해 학교 관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장에 이어 교감, 행정실장 등 직급별 워크숍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고흥교사들, 교육과정에서 지역 역사와 문화를 담다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길주)은 20일부터 8일간 대회의실에서 교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고흥의 역사·문화 비로알기' 특수분야 직무연수(30시간)를 시작했다.

박병섭 향토사학자, 신경숙 고흥분청문화박물관 학예연구사, 송호철 박사, 최인선 순천대 교수, 이효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 오동찬 국립소록도병원 치과장, 선호남 연흥미술관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고흥의 역사 개괄적 소개, 고흥의 선사와 도자기, 고흥의 수난과 성취, 고흥의 불교문화, 고흥의 시와 그림, 고흥과 우주, 소록도 한센인 역사를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이어진다. 또한 5월 25일과 6월 1일에는 현장답사가 진행된다.

이종영 교사(고흥남양중)는 "교사가 먼저 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제대로 지역성을 담은 교육이 가능하다. 그 점에서 이번 연수는 매우 유익하다. 아이들에게 우리 고향 선조들의 삶을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흥=한윤섭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문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문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혁신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 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